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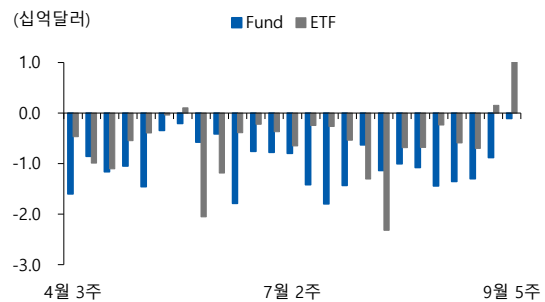


누군가는 줍줍 중

1. 유럽주식펀드, 2월 이후 처음으로 순유입

- 신흥국주식펀드와 ETF는 7주 연속,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는 17주 연속 순유출.
- 러시아의 불리한 전황이 이어지면서 유럽주식펀드와 ETF는 2월 이후 처음으로 자금 순유입.
- 미국주식펀드와 ETF는 주식시장 하락으로 저가매수가 들어오면서, 10월 첫째주에 32.6억달러 순유입으로 전환.

유럽주식펀드와 ETF는 2월 이후 처음으로 순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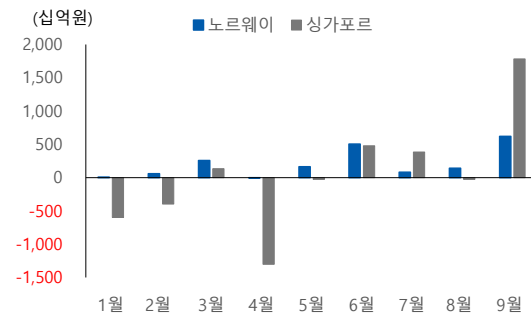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9월에도 싱가포르와 노르웨이는 국내주식 매수

- 미국 연준의 빅스텝과 달러 강세 등으로 9월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2조 3,330억원 순매도.
- 헤지펀드와 패밀리오피스 등이 위치하여 매크로 환경변화에 민감한 영국과 룩셈부르크는 9월 국내주식 순매도에 큰 영향을 줌.
- 노르웨이(국부펀드와 연기금)와 싱가포르(국부펀드)는 5월부터 국내주식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음.

싱가포르는 6월보다 9월에 국내주식 순매수 규모 크게 늘림



자료: 금감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유럽주식펀드와 ETF, 2월 이후 처음으로 순매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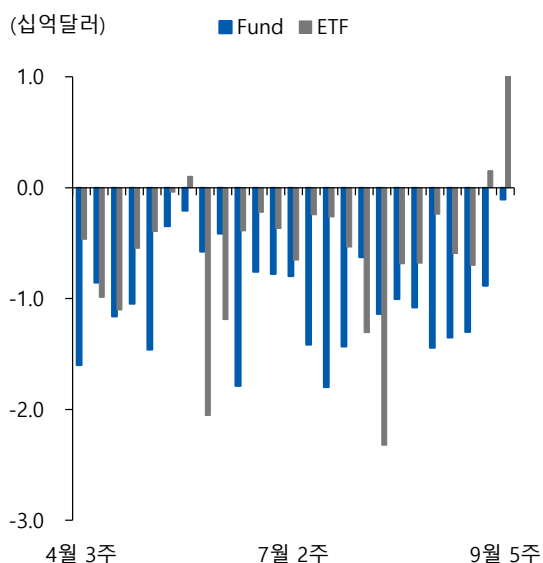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펀드 시장의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에서는 자금 유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신흥국주식펀드와 ETF는 7주 연속,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는 17주 연속 순유출을 이어가고 있다(9월 5주 기준). 신흥국주식펀드의 순유출 규모는 커졌지만, 신흥국주식ETF가 순유입으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이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글로벌 펀드시장의 유럽주식펀드와 ETF는 자금 유출이 계속 이어져왔다. 갈수록 러시아에 불리한 전황이 이어지면서 유럽주식펀드와 ETF는 2월 이후 처음으로 자금이 순유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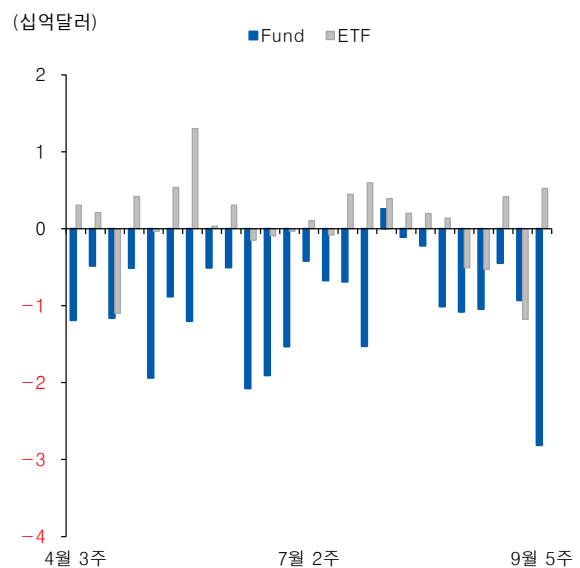
미국주식펀드와 ETF는 9월 마지막주 103.1억달러가 순유출되었으나, 10월 첫째주에는 32.6억달러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주식시장 하락이 이어지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트1] 유럽주식펀드와 ETF는 2월 이후 처음으로 순유입 .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신흥국주식펀드와 ETF는 순유출 규모 확대 .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9월에도 싱가포르와 노르웨이는 국내주식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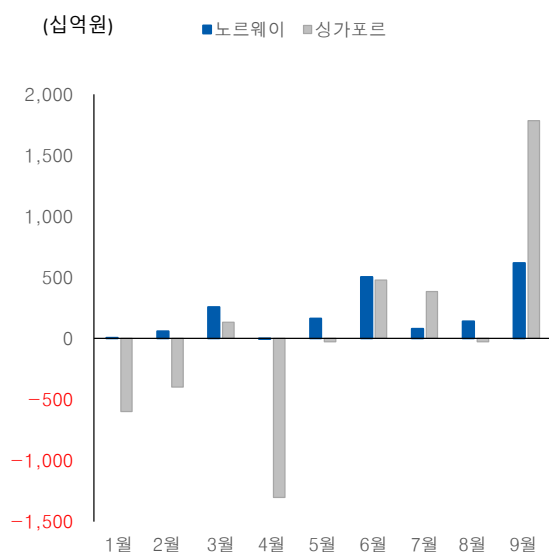
미국 연준의 빅스텝과 달러 강세 등으로 9월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2조 3,330억 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은 9,800억원 순회수하였다. 외국인은 연초 이후로 18조 440억원의 국내주식을 순매도하였다.

9월의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도에는 영국(2조 2020억원)과 룩셈부르크(9320억원), 미국(7830억원)의 영향력이 컸다. 헤지펀드와 패밀리오피스 등이 위치하여 매크로 환경 변화에 민감한 영국과 룩셈부르크는 지난 6월에도 국내주식 순매도를 크게 늘렸었다.

반면 노르웨이와 싱가포르는 5월부터 국내주식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다. GIC와 테마섹 등의 국부펀드가 위치한 싱가포르는 6월 4,770억원의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수했었고, 9월에는 1조 7820억원으로 순매수 규모를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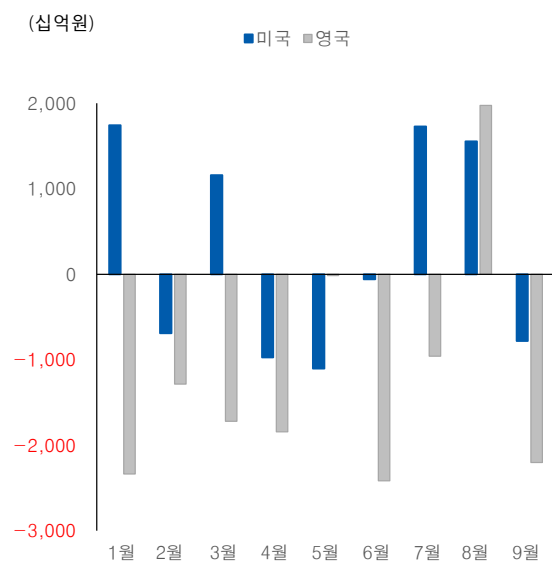
9월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수한 국가는 싱가포르 외에도 노르웨이, 일본 등이 있다. 노르웨이는 장기투자 성격의 노르웨이국부펀드와 연기금 등의 영향력이 크다. 원화 약세와 주식시장 하락으로 장기투자 성격이 강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 매수를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차트3] 싱가포르는 6월보다 9월에 국내주식 순매수 규모 크게 늘림.



자료:금감원,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전월 국내주식을 순매수했던 영국은 9월 순매도 전환 .



자료:금감원,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